

# '길림소' 향촌 산업 진흥, 현대화 농업 발전의 추진력으로

전국 최초

길림성 촌진은행 전반 업무 신용 조회 시스템 접속 실현

- 상반기 도축량 22 만 1,000 마리, 지난 동기 대비 123% 증가
- 소고기 성외 판매량 1 만 4,700 만톤, 지난 동기 대비 146% 증가
- 고기소산업 생산액 지난 동기 대비 9.1% 성장



제 23 회 중국장중국제농업·식품박람회(교역)회에서 초인기를 누린 '길림소 중국 일류' 브랜드 기업 유치회 / 길림일보

상반기 고기소 사육량은 604 만 4,000마리로 지난 동기보다 12% 증가, 고기소 전체 산업사슬의 생산액은 1205.7 억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9.1% 증가... 지난해 이래 국내 활체소 가격이 하락하고 고기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고기소산업의 효익이 떨어지는 형세에서 길림성은 정책, 서비스, 산업사슬 업그레이드, 국내 대시장 개척 등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나름의 '소의 길'을 개척해냈다. '길림소'는 농업대성의 향촌 산업 진흥, 현대화 대농업 발전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고 있다.

### “정책과 서비스가 받쳐주니 자신감 높아졌다”

올해 들어 길림성은 일련의 조치를 출범하여 고기소 사육 효익이 떨어지는 데 대응하고 사육 심신을 진작시켜왔다. 장춘시 구태구 태화촌 사육업자 장홍주는 최근 무료로 량질 고기소 랑동 정자를 제공받았다. 그는 “정부가 무료로 제공해주어 사육 원가를 낮출 뿐만 아니라 고기소 품질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년초부터 길림성은 4,775 만원을 투자해 량질 고기소 랑동 정자 보조 항목을 실시하여 고기소 및 그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사육장(농가)의 적극성을 보호하고 동원하였다. 길림성은 자원 천품이 좋아 다년간 고기소 사육호 규모가 34만가구에 달하였다. 2021년부터 길림성은 ‘천만

마리 고기소’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고기소산업을 향촌 진흥의 대산업으로 육성해왔다. 올해 년초부터 길림성은 고기소산업 영역의 은행과 기업 연결회를 여러차례 소집하고 노란색 곡물줄기 발효 사료를 저장하는 사육주체에 보조금을 지급, 무료로 ‘방역서비스 공시 카드’ 발급 등 사육장(농가)에 번식 개량, 용자, 기술지도 등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비록 시세가 부진하지만 사육주체는 자신감이 충분하다. 유수시 립립 풍기계제배사육전문합작사는 올해 공장건물을 확건하고 기초 암소 500마리를 구매했다. “보험과 대출 등 정책 서비스 지원이 있어 소 값이 낮은 시기를 타서 경영을 확대했다.”고 합작사 책임자 우금중은 말한다. 상반기에 길림성 고기소 활체 담보 대출은 76 억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26.69% 늘어났고 정책성 보험 고기소는 165만마리로 지난 동기보다 19.4% 늘어났으며 고기소 사육량은 604만 4,000마리로 지난 동기보다 12% 증가되었다.

### “활체소에서 제품화까지 2시간 밖에 안 걸려”

길림성은 비록 우리 나라의 중요한 ‘육류창고’이지만 다년간 고기소 산업사슬이 짧고 대부분 활체로 성밖으로 운송해 판매하다 보니 부가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약했다. 길림성은 시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버팀목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사슬의 업그레이드를 도와나섰다.

중원의 우세를 단단히 쥐고 있다. 국가 고기소 핵심 육종장으로서 길림성신목과학기술유한회사는 배아 이식 등 신기술을 응용하여 매년 시장에 근 1,000 마의 종자소 배아와 수백만개의 량질 랑동 정자를 공급한다. 길림성은 과학연구기구와 대학에 의탁하여 고기소종자업혁신 센터를 설립하고 연변황소, 조원홍소, 옥금홍소 등 특색 종군 육종과 품질 제고에서 기술난제 해결을 전개하였다.

좋은 소를 사육해내는 동시에 산업사슬을 끌어올렸다. 장춘시농업축목업가공산업시범단지내 전자동화 생산라인에서는 신선, 숙식 등 소고기 제품이 연속 출품된다. “지능화 장비들이 적적 맞물려 활체소에서 소고기 제품화까지 2시간 밖에 안 걸린다.” 단지 기업 책임자 리봉은 고기소의 정밀 가공을 추진하여 제품을 사전제작료리, 생물보건 등 7대 분야로 확장했다고 소개한다.

길림성은 도축 증량 장려정책을 통해 기업의 도축 가공 발전을 장려하고 콜드체인(冷链仓储) 저장시설 건설 등 16가지 정책 자금이 기업, 과학연구단위 등에 직접 조달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연구개발, 정밀가공 확장, 산업사슬 연장을 인도하고 있다. 제 3 산업 융합을 엔

진으로 길림성 고기소산업은 ‘활체소 판매로부터 전반 산업사슬’로 승격되었다. 올해 상반기 길림성 고기소 도축량은 22 만 1,000마리로 지난 동기보다 123% 증가되었다.

### ‘길자호’ 소고기 당일로 송달

일전에 폐막된 제 23 회 중국장중국제농업·식품박람회(교역)회에서 ‘길림소 중국 일류’ 전시관은 인기가 높았다. 전국 고기소산업 관련 70여개 기업이 ‘길림소 중국 일류’ 브랜드 기업 유치회에 모여 현장에서 전략적 협력 의향을 체결했는데 거래액이 8,600 만원에 달했다.

‘브랜드 육성’을 틀어쥐었다. 년초부터 지금까지 ‘길림소 중국 일류’ 브랜드 핵심 주제를 둘러싸고 계열 공용브랜드, 기업브랜드, 제품브랜드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길림소’ 시장을 개척하였다. 길림목축부문은 성내 주요 기업을 인솔하여 상해시아 국제식품전람회, 길림(吉粵) 생산 판매연결회 등 일련의 활동에 참가하고 경동, 토우보 등 11개 전자상거래플랫폼과의 협력을 심화하며 남방항공주식유한회사와 함께 ‘항공우수’ 통로를 열어 길림의 ‘신선한 소고기’를 생산지에서 판매구까지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받게’ 했다. 장춘시 농안현에서 장춘성개농업투자발전그룹유한회사가 개발한 스테이크, 사전제작료리 등 제품이 연속 전국의 여러 큰 상가에 들어가고 있다. “경영 상가가 200 개로 늘어났고 여러 외식업체와 합작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회사 책임자 송광문은 말한다.

길림성은 계속 제 3 산업으로부터 접근하여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제 2 산업 도축가공업의 량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활성화하여 제 1 산업 사육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고기소산업을 부민강성의 우세 산업으로 육성하였다.

상반기, 길림성의 소고기 성외 판매량은 1 만 4,700 만톤으로 지난 동기보다 146% 증가, 장춘시월, 화천황소, 연변분북 등 10개 선두기업의 생산액은 78.57 억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21.37% 증가되었다.

“길림소 중국 일류” 이야기를 잘 전파하고 플랫폼 자원과 광범한 시장 경로를 깊이있게 융합시켜 농목 순환 경제의 특색 경로로 고기소산업이 더욱 높은 차원으로 매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길림성목축업관리국 국장 채관은 말한다.

/ 신화매일통신

보편혜택성 금융봉사 품질 향상으로 효익 증대에 조력

인민은행 길림성분행은 ‘보편혜택성 금융’ 총목표를 참담게 정하고 신용 조회 공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전국 최초로 촌진은행 전반 업무 신용 조회 시스템 전면 접속을 실현하여 길림성에서의 신용 조회 시스템의 피복면, 봉사력과 보편혜택성을 확실하게 향상시켰다. 하여 농가, 개인공사업자 및 소기업주 등 일반 혜택 분야, 집단의 신용 서류를 크게 풍부히 하여 성내 금융 시스템이 실물경제 발전에 더욱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신용 조회 시스템 접속은 촌진은행 신용 대출 업무 범위를 진일보 확대하여 대출 원가를 낮추고 효익을 증대시켰다. 한편으로 고객 신용 정보의 표준화와 디지털화를 실현하여 잠재적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위험 관리의 효율과 정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더욱 합리적인 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목적성 있는 신용 대

/ 길림일보

## 풋옥수수가 수출길에 오르기까지



안도 옥수수과학기술뜨락의 풋옥수수 관건기술 연구 시범 보급 성과는 옥수수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풋옥수수 수출이 우리 성 대외무역 발전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로 되었다. 길림성복용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만도 올해 한국측과 장기적 주문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풋옥수수 수출의 길에 오르기까지 과학기술 버팀목, 해관의 조력 등을 떠날수 없다.

2021년에 안도현혁신창업부화기에 입주한 길림성복용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는 풋옥수수 재배, 신제품 연구개발, 가공, 브랜드 판매를 일체화한 제 3 산업 융합형 기업이다. 1년전 길림성과학기술협회와 길림농업대학이 길림성복용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를 의탁의 옥수수 생산자업장에 설립하고 기술뜨락을 설립했다. 길림농업대학 식품과학및공정학원 밭, 옥수수 심층가공 국가 프로젝트 연구중심의 허수영교수와 대학원생팀은 실험실을 복용농업과학기술유한회사 옥수수 생산자업장에 설립하고

고 해관 업무원들에게 또 다른 기대와 우려를 터놓았다.

“우리 회사는 올해 한국과 3,000 만원의 풋옥수수 장기적 주문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으로 한국과 업무를 전개하는 건데 해관 검사검역 요구를 잘 료해하지 못해 수출 신고가 격정이네요. 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풋옥수수의 수출 품질 제고를 돕기 위하여 장춘해관 소속 장백산해관은 속지 검사 감독관 절차를 최적화하고 풋옥수수의 부패하기 쉬운 특점에 비추어 전용 록색통로를 개척하고 ‘우선작업 + 예약검사 + 신속성 있는 검사’ 감독관리 모식을 최적화하여 ‘신고하는 족족 검사하고 검사하는 족족 통관’하는 개성화된 원산지 맞춤형 신고 방안을 제정하여 정확한 지도, 집성 봉사를 실현함으로써 통관 절차를 최대한으로 줄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수수 황금재배지대에 있는 우리 성은 전국적으로 가장 일찍 풋옥수수를 상품화한 성이며 풋옥수수산업은 매우 큰 수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관부분의 지지하에 수출기업의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해외 주문이 증가되었는데 기업의 재배면적은 기존의 220 헥타르에서 500 헥타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해관 사업일군이 기업에 심입하여 수출 고리의 요구를 청구하고 전문반을 설립하여 ‘1:1’ 정향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제수집 피드백 기제를 보완하고 기술무역 감시중점소조를 구성하여 고위험 국의 기술무역 조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통해 기업측 기술무역 조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고 기술무역 장벽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 본지종합

## ‘길림 1호’ 광폭 02B 시리즈 위성 정식 출정

국제적으로 가장 가벼운 초광폭 아미급 광학 원격탐지 위성

일전 장광위성기술주식유한회사는 길림성향전정보산업단지에서 ‘길림 1호’ 광폭 02B 01-06 총 6대 위성의 출정식을 거행했다. ‘길림 1호’ 광폭 02B 01-06 시리즈 위성은 설계 제조 단계에서 여러가지 핵심기술을 돌파하였다. 그 유효 하중이 리축 4 반 광학(离轴四反光学)

카메라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가벼운 초광폭 아미급 광학 원격탐지 위성이다. ‘길림 1호’ 광폭 02B 01-06 위성은 장광위성기술주식유한회사가 출자하고 자체로 연구한 최신 세대 피복형 위성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소량으로 연구 제작한 초광폭, 고해상도 광학 원격탐지 위성이다. 이

계열의 위성은 사용자에 150 키로미터 폭, 0.5 미터 해상도의 고화질 위성영상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큰 폭, 고해상도, 고속 수신, 저비용 특징을 구비했다.

이번에 출정한 6대 위성은 근일 중국 태원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 성공후 ‘길림 1호’ 위성

성좌의 네트워크 구성 과정을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장광위성’의 고해상도 원격탐지 정보 획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며 국토자원 전면 조사, 지해도시 건설, 농업 립업 개발 등 분야에 더욱 풍부한 원격탐지 데이터와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길림일보

## ‘흥기’차 싣고 해외로, 첫 전용렬차 발차

제 1 자동차그룹 ‘흥기’ 완성차 수출 전용렬차 발차식이 일전 심양에서 거행되었다. 165 대의 ‘흥기’ 완성차를 만재한 열차가 중국-유럽렬차(심양) 집결센터 포하장역에서 발차했다. 이로써 제 1 자동차그룹수출입회사와 중국외운(外运) 주식유한회사 심양렬차플랫폼간 협력 서막이 열

렸다. 국가 ‘일대일로’ 협력 창의를 깊이있게 실천하고 중앙기업의 연합 출항을 지지할 데 대한 국무원 국가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창의를 적극 호응하기 위해 제 1 자동차그룹수출입회사는 2023년에 중국외운주식유한회사와 전략적 협력 협의를 체결, 쌍방은 규

모 우세, 업무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국제 주문 교부, 종합 공급사슬 보장, 지능화 건설 등 면에서 일련의 협력 교류를 전개해왔다.

이번에 ‘흥기’ 완성차 수출을 담당할 전용렬차 플랫폼인 중국외운(심양) 국제렬차유한회사는 중국-유럽렬차 심양지역의 유일한 해당

업무 운영 플랫폼이다. 현재 제 1 자동차그룹수출입회사는 이미 심양 철도국 산하 5개 중국-유럽렬차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상황, 동북지역 련차 플랫폼의 우세를 발휘하여 민족 자동차 브랜드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 길림일보